상월결사 정신 대중이 함께 잇는다

수국사, 11월 27일 특별정진 개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템플스테이관서 매주 토 운영
스님들과 함께하는 묵언 정진
봉은사도 상월템플스테이 진행


11월 27일 수국사 월초당에서 열린 특별정진에서 주지 호산 스님이 재가불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엄동설한 천막정진을 통해 한국불교 중흥의 기치를 들었던 상월결사의 정신이 동안거 기간 수국사 열린선원에서 이어지고 있다.

서울 수국사(주지 호산)는 11월 27일 동안거 결제에 맞춰 템플스테이관인 월초당에서 재가자들의 특별정진을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정진은 수국사에 방부를 들인 스님 9명과 재가자들이 함께 수행하는 자리다.

현재 수국사에는 동안거 입재일인 11월 19일부터 상월선원 천막결사 당시 선원장이었던 무연 스님을 비롯해 당시 지전 재연 스님, 만행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 등 스님 9명이 정진하고 있다. 이들 스님들은 월초당에 천막결사 때의 1인용 텐트를 설치하고 결사 당시와 같은 1일 1식, 묵언 수행으로 정진하고 있다.

이번 특별정진은 수행을 통한 포교전법 차원에서 입방 스님들이 안거기간 매주 하루 재가자들을 이끌고, 정진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특별정진은 안거 해제까지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5시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오전 정진에는 36명, 오후 정진에는 25명의 재가자들이 참여한다.

짧은 시간의 정진이지만 참여 재가자들의 자세는 진지했다.

상월청년회 1기인 지암 이윤석 씨(27)는 "청년회 활동 중 아홉 스님 영화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삼보순례 1일 참여도 하며 천막결사에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됐다"며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불교가 전법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 스스로도 주말에 틈틈이 수행하고, 이를 주변에 알리기 위해 이번 정진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여심 박건효 씨(27)도 "청년회 친구들과 함께 템플스테이를 하며 수행에 관심을 갖게 됐고, 친구 추천으로 특별정진에 참여하게 됐다"며 "매주 토요일 하루지만 마음을 여유롭게 하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하고자 한다. 앞으로 청년불자들이 함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7일 진행된 특별정진에서는 처음 정진하는 이들을 위한 습의과정이 진행됐다. 입승 스님은 가부좌로 앉는 것부터 선정인 모양, 허리와 가슴 등 자세 등을 설명했다. 또 좌선 후 포행 등 전체적인 정진 과정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습의 후에는 스님들과 함께하는 정진이 이어졌다.

수국사 신도인 보설심 김옥희 씨(60)는 "천막결사 당시 상월선원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면서 스님들 수행을 멀리서 보며 수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며 "주지 스님이 오시면서 템플스테이가 진행되고, 수행의 자리도 만들어져서 너무나 좋다. 항상 오는 수국사지만, 깊은 산중사찰에 와있는 것처럼 새로운 기분도 들고, 스님들과 함께 정진하며 더 깊은 신심이 나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주지 호산 스님은 "수국사 안거는 주지 소임 등으로 선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도반 스님들과 새로 만든 월초당에서 정진하면 어떻겠냐는 뜻을 모아 이뤄졌다"며 "불교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재가자들이 정진하는 스님들과 함께 정진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생각했다"고 이번 특별정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특별정진에 20대 30대 청년들이 함께하는 것에서 한국불교의 희망을 느낀다. 선수행은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것"이라며 "선에 대해 거리감이 있던 이들도 스님들과 같이 한철 수행을 하게 되면 보다 가까워 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번 특별정진은 안거기간 총 12회 진행되며, 1월 8일에는 충주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을 지도법사로 정진이 진행된다.

한편, 서울 봉은사도 동안거 기간 동안 상월선원 템플스테이 수행정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위드코로나로 인해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2박 3일 참선집중수행이 진행된다. 봉은사 매화당 뒤 10개 텐트 중 1동은 지도법사 스님이 상주한다.

"호국불교 전통 이어 군포교 역사 만들어 가겠다"

군종교구, 11월 30일 53주년 법회
계룡대 홍제사 불사 원만 회향 염원



제5대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사진 왼쪽)이 군종교구기를 힘차게 흔들고 있다.

국토방위의 사명을 다하며 장병들을 위한 군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육·해·공 군승들을 격려하고,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일)는 11월 30일 국방부 원광사에서 '제53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순직 군승 합동추모재'로 시작된 기념법회에는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을 비롯해 초대교구장 일면 스님, 2대교구장 자광 스님, 4대 교구장 혜자 스님, 예비역 법사단장 법일 스님, 국군불교총신도회 사무창장 이경구 장군, 예비역불자회장 박대섭 장군, 현역 중령이상 선임군승과 예비역 군승, 불교계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각군 선임 군승 150여 명은 온라인 플랫폼 zoom으로 동참했다.

기념 법회는 지난 7월 코로나19로 봉행하지 못한 '제5대 군종교구 출범 선포식'도 겸하는 법회로 진행됐다. 5대 교구장 선일 스님은 4대 교구장 혜자 스님으로부터 군종교구기를 이양받았다. 혜자 스님은 군종교구기를 건내며 호국 홍제사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기를 축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모든 군승과 군종교구 구성원들은 호국불교 정신을 계승함은 물론, 당면과제인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변화를 효과적이고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군종교구 원력으로 지난달 개관한 계룡대 교육관에 이어 한창 건립 중인 군불교 총본산 호국 홍제사 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은 봉행사에서 현역 군승 법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육해공군 합동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불사 현황을 설명하고 "전법과 대작불사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것은 창조신이 아닌 바로 여러 불자들의 원력"이라며 "하루속히 불사가 잘 이뤄져 군 가족과 장병들이 함께 법회를 보는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청년회는 11월 27일 제39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열고 불법홍포를 다짐했다.

불자 청년 2년 만에 하나로 뭉치다

대한불교청년회, 11월 27일 전국불교청년대회 개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 이하 대불청)는 11월 27일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창립 101주년 기념 제39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하나 된 마음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회에서 청년불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연대함으로써 정토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했다.

이날 식전행사로 '노래패 우리나라' 가수 백자의 인물 콘서트 '만해를 노래하다'가 진행되었고 만해 스님의 시와 작품으로 만든 10여 곡 중 '청년불자의 노래'는 큰 호응을 받았다.

본 행사에서는 모범 불청인 시상식이 진행됐다. 올해 불청대상에는 강원지구 임학송 불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자랑스런 불청선배상에는 김춘길 자문위원, 최우수지구상에는 강원지구, 최수우지회상에는 경기지구 대승원청년회가 선정됐다.

우수지구에는 조계사청년회, 우수지회에는 서울지구 만해불교청년회, 우수회원상에는 강원지구 강릉불청 김금철, 우수회원상에는 강원지구 원주불청 원기표 등이 수상했다.

청년불자 결의문 발표에서는 대불청 회원 자녀들이 청년불자 의지를 모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불청대회 화합의 장에서는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이 진행됐으며, MC영준의 진행 하에 지도법사 스님들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도 진행됐다.

한편, 제39차 전국불교청년대회 이튿날에는 대불청 '역사바로알기운동본부'와 경기지구 주관으로 주어사지 낡은 연등 교체작업이 진행됐으며, 결의문을 통해 주어사지를 종교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결의를 세웠다. **노덕현 기자**

진흥원, 군종교구에 지원금 7000만원 전달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이 군포교 진흥을 위한 지원금을 쾌척했다.

진흥원은 11월 29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일)에 군포교 진흥 지원금 7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원금 전달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한구 진흥원 이사장은 "청년 장병들에게 명상, 참선수행 등 차별화된 불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청년불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진흥원은 매년 군 포교 진흥기금으로 1억 원 내외를 전달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불자학생들 헌혈로 영호남 화합

영호남 불교 종립학교가 '국민통합 생명나눔' 실천에 나섰다. 학교법인 정광학원(이사장 덕문) 산하 정광고와 학교법인 동곡학원(이사장 태관) 선화여고는 11월 27일 화엄사 화엄원에서 양교 학생들이 기부한 헌혈증서 300매를 전달했다.

이날 기증된 헌혈증서는 광주와 경북지역 환우들에게 전달된다.

이번 헌혈증 전달은 코로나19로 헌혈이 중단되며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의료계 상황을 듣고 수능을 마친 양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헌혈하며 이뤄졌다. 정광고는 2013년부터 매년 학생들이 헌혈에 나서 지역 백혈병 소아암 환우를 지원하고 있었다. 올해까지 기부한 헌혈증은 총 4523매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 광주전남 종무원장에 월인 스님



태고종 광주전남교구 종무원장에 광주 법륜사 주지 월인 스님<사진>이 재선출됐다. 광주전남교구 종무원은 12월 1일 광주 서구 운천사에서 제130차 교구지방종회를 열고 제17대 종무원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월인 스님을 만장일치 선출했다.

월인 스님은 당선소감을 통해 "종도와 함께하는 종무행정과 화합된 집행부를 만들어 교구발전과 태고종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문화사업단, 독일에 韓'사찰음식' 알리다

사찰음식 1호 명장 선재 스님 강의
현지인 "흥미로운 미식 여행" 소감


한국 사찰음식의 특징을 줌에서 설명하는 선재 스님.

한국의 사찰음식이 독일 인플루언서의 미각을 사로잡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11월 26일 독일의 인플루언서 및 음식 관련 저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사찰음식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개최했다.

한국관광공사 프랑크푸르트 지사와 협업한 이번 강의는 '선재 스님과 함께하는 한국 사찰음식 만들기'를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 줌으로 이뤄진 강의에는 독일 인플루언서와 채식협회 회원, 음식 관련 저널리스트 등 총 50여 명이 참여했다.

강의에서는 사찰음식 전문가 스님이자 사찰음식 1호 명장인 선재 스님이 호두 재피 고추장 무침, 버섯 된장 채소볶음, 감자찜, 감자 옹심이의 총 4개 메뉴를 선보였다.

선재 스님은 "사찰음식은 단순히 채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채식이라는 기본 바탕에 수행과 생명존중, 건강의 의미도 담겨있다"며 한국 사찰음식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어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를 만든다. 좋은 음식이란 자연에서 오며, 모든 생명이 행복해야 스스로가 행복한 것"이라며 "모든 음식이 약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을 대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경주캠 "장기관점서 이전 검토"

캠퍼스이전추진위원회 11월 30일 첫 회의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지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 방안으로 캠퍼스 이전을 고심하고 있음이 재차 확인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11월 30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캠퍼스이전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캠퍼스이전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중순 경 위원들이 선임되고 운영에 들어갔으며, 이날 회의서는 그동안 연구됐던 캠퍼스 경쟁력 강화·이전에 대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특성화 및 학사구조 운영 방안,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활성화,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입시홍보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캠퍼스 이전 논의는 지난 1월 19일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 감사 보고에서 "장기적으로는 경주캠퍼스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 학교의 경쟁력을 마련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면서 본격화됐다. 여기에 학생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학생회는 감사 보고 발표 직후인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97.8%가 캠퍼스 이전을 찬성했다.

원종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전추진위원장은 "현재 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유치와 잘 되는 분야 및 필요한 분야로 학사구조 개편 등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지자체 상생협력 방안 제시 등 당면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면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캠퍼스 이전 계획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